

전세계에 부는 독서 캠페인 열풍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돋보여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금 전세계에는 어린이 독서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일이 바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믿음의 실천이다. 어린이들이 독서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특히 지식정보국가를 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둔 독서가 즐겁기는 힘들다. 하물며 강요된 독서라면 차라리 고문에 가깝다. 독후감을 쓰기 위한 독서가 즐거웠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독서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여야 한다. 그럼에도 독서 캠페인, 특히 어린이 독서 캠페인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발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캠페인은 정당하다.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행복 추구권의 문제에 가깝다. 독서의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까지 명시하자고 든다면 지나친 일이겠지만, 적어도 어린이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독서 캠페인은 그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어른들의 책임 사항이다.

아시아권과 저개발 국가도 독서 운동 펼쳐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 교육부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3년 일정으로 '어린이 독서 캠페인' (全國兒童閱讀)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 진행 기간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매년 50권 이상, 3, 4학년 학생들은 40권 이상, 5, 6학년 학생들은 30권 이상의 책을 읽도록 돼 있다. 대만 교육부는 이런 독서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추천 도서목록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독서량과 읽은 책의 제목을 기록하는 '독서 패스포드' 제

도도 시행한다. 어린이 독서 관련 정보 제공과 카운셀링을 전담할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학교 당국, 교사,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집행위원회도 발족시켰다.

캠페인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천수이벤 총통과 대만국립중앙연구원장 리위안썸 박사, 청소년들의 우상인 앤디 라우 등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 과정에서는 독서를 통해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 방안, 정규 교과 과정과 독서 활동을 통합하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시행 후 1년이 지나면 대략 5백여곳에 달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만여 일반 가정 캠페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천 곳이 넘는 학교에서 정규 교과 과정과 캠페인 프로그램이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대만에는 약 5천4백 곳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다.

독서 캠페인 열풍은 저개발국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네팔에서는 '부모들 스스로 읽고, 자녀들에게 읽어준다'는 모토를 내세운 전국적인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그곳에는 전통적으로 '교육과 지식의 날' (사라스와티 푸자, 2월 10일)이 있는데, 그 날의 정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보통 2월 10일에 독서 캠페인이 시작된

다. 네팔의 개발 및 인구 센터(CEDPA) 주도로 44개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어린이들은 연극 관람,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등에 참여하고, 판매용으로 서점에 진열돼 있는 책도 아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펼쳐 볼 수 있다. 집안 형편이 나은 도시 지역 아이들은 캠페인 기간에 용돈의 일부를 가난한 집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하기도 한다. 네팔의 경우, 독서 캠페인이 교육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를 꾀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성공한 독서 캠페인의 전형, '북스타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무척 성공적이기도 한 독서 캠페인으로는, 1992년부터 영국 버밍엄에서 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된 '북스타트' (Bookstart) 운동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모든 연령층이 책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운동은 1926년에 설립된 민간단체 북트러스트(Book Trust)가 주도한다. 북트러스트는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 도서상인 부커상, 한 살 이하 유아를 위한 우수 도서에 상을 주는 세인스버리 유아 도서상 등 여덟 개의 권위 있는 도서상을 운영한다. 북스타트 운동의 기본 정신은, 가능한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후 7~9개월 때 건강 검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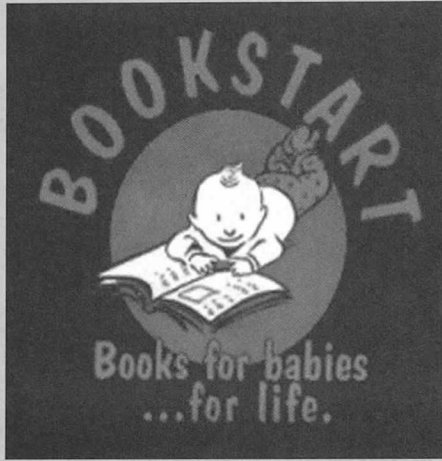
받는 아이들에게 두 권의 유아용 도서와 부모용 소책자가 담긴 가방을 제공한다. 부모를 위한 책자는 해당 지역 도서관 이용 안내와 함께, 유아의 독서 활동 지도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이 운동은 현재 대략 10만 명에 달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들이 앞다투어 이 운동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성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트러스트는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재정 지원 확보를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참여 어린이들의 향후 발달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 있다. 버밍엄 지역에서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버밍엄 대학 교육학과에서 5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책·서점·도서관 등에 대한 친근감, 책을 활용하는 빈도, 북클럽 활동이나 도서관 열람 등에서 모두 앞서 있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학습 과업 성취도도 높았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특히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에서 공히 앞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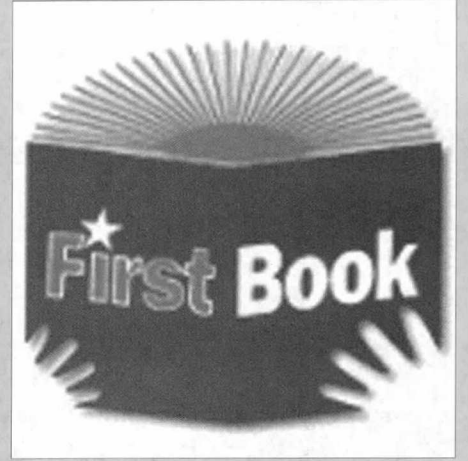
역시 영국의 경우인데, 1995년 제2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정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이 되면 지역 공동체, 서점, 학교 단위로 어린이 중심의 독서 캠페인 행사가 다양하게 벌어진다(2001년에는 5월 1일 예정). 그날을 중심으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영국 각지의 도서관과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연극, 시 낭송, 작가 초청 대담, 도서 전시회, 글짓기 등의 행사가 벌어진다. 각급 도서관, 서점, 일반 가정 등에서 여분의 책을 기증받아 저개발 국가에 보내는 사업도 이날을 앞뒤로 해 전개된다. 공영방송 BBC도 이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한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미국의 독서운동

또한 북토큰(Book Token)을 발행해 행사 두 달 전쯤 학교를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배포한다. 정해진 기간에 행사 참여 서점에 북토큰을 제출하면, 일정액이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다. 북토큰 사업의 재원은 서적상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충당된다.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독서 운동의 특징은 자발성과 실효성에 있다. 실득력 있는 취지와 충분한 사전홍보로 광범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은 북스타트 운동(왼쪽)과 퍼스트북의 로고.



어린이들이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인 비영리 민간 단체인 퍼스트북(First Book)이 주도하는 캠페인이 인상적이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자신의 '첫 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복지 및 구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자원 봉사자들이 책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원 봉사자들은 지역별로 퍼스트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다. 작년 한 해의 경우 약 400만권에 이르는 책을 저소득층 가정에 보급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중고 도서를 보급하지 않고 반드시 새 책을 보급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물건이나 책을 가질 기회가 드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새 책을 보급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북돋워주고 독서에 좀더 큰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요 재원은 기부금으로 충당되는데, 15달러, 30달러, 99달러, 300달러 단위로 기부액 단위가 설정돼 있다. 출판 및 도서 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도서를 기증받기도 하며, 많은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할인 가격에 책을 무료 배송해 공급한다. 이 캠페인은 '부의 재분배'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의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독서 캠페인은 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대로'란 어린이의 지적, 정서적 발달과 독서

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일회성·전시성 행사가 아닌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등을 뜻한다.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 못지 않게, 그들이 독서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국가를 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